조기진통 임부의 조기진통스트레스, 태아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의 관계

손 희 진¹ · 박 정 숙²

울산대학교병원 간호부¹, 고신대학교 간호대학²

= Abstract =

Relationship between Preterm Labor Stress, Fetal Attachment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in Pregnant Women with Preterm Labor

Hee Jin Son¹ · Jung Suk Park²

Chief of Nursing, Ulsan university Hospital¹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²

Objec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term labor stress, fetal attachment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in pregnant women with preterm labor, which was carried out in a descriptive form.

Methods: The study objects were 121 pregnant women hospitalized for preterm labor at one university hospital and four women's hospitals in U metropolitan City. The data were based on the self-report questionnaires made between October 1st, 2012 and January 31, 2013.

Results: The degree of preterm labor stress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of pregnant women with preterm labor were found to be higher than the middle, and the degree of maternal role confidence was found to be lower than the middle.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preterm labor stress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r=.197, p=.030$).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preterm labor stress and interaction with the fetus ($r=-.185, p=.042$). and role taking among the subscales of maternal-fetal attachment ($r=.346, p=.001$).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at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intention to the fetus among the subscales of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r=.254, p=.005$).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reducing preterm labor stress and increasing maternal-fetal attach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maternal role confidence of preterm labor pregnant women, as well as a program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degree of preterm labor stress,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Key Words: preterm labor, pregnant women, stress, maternal-fetal attachment, maternal role confidence

※이 논문은 손희진(지도교수: 박정숙)의 석사 학위 논문의 축약임.

교신저자: 박정숙,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4번지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전화번호: 051-990-6451, 팩스번호: 051-990-3031, E-mail: cooler1978@kosin.ac.kr

원고접수: 2013년 8월 14일, 원고심사: 2013년 9월 23일, 원고채택: 2013년 10월 18일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 산과학 및 주산기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조기진통과 조산의 빈도는 아직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Morrison 등, 2004).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조산율은 2005년 4.8%에서 2010년 5.8%로 증가하고 있다(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0).

조산은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것으로 신생아 사망률의 50~70%를 차지한다. 국내 조산아 중 약 50%는 출생 후에도 호흡곤란이나 뇌성마비 및 안과 질환 등의 합병증이 남게 된다(Shin, 2006). 이러한 조산의 주원인인 조기진통은 임신 3기의 흔한 합병증이며 전체 임신의 6~15%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Slaterry & Morrison, 2002). 조기진통은 임신 20주에서 37주 사이에 자궁경관의 진행성 확장(dilatation)과 소실(effacement)을 동반하는 규칙적인 자궁수축으로 정의될 수 있다(ACOG practice bulletin, 2003).

조기진통으로 진단을 받으면 임부는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며 입원이 장기화되면서 가족과 떨어지게 되며 일상적 활동의 제한을 받고(Loos & Julius, 1989), 자신의 신체상 변화로 인해 정서적인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Kim, 2003). 또한 만삭임부에 비해 조기진통 임부의 피로, 불안, 스트레스가 1.5배나 높다(Moon, 2006). 그리고 조기진통 임부에게는 태아나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 신체적 불편감, 조산 등 정서적인 불안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태아착행위의 저하(Moon 등, 2006)와 모성역할 자신감의 저하를 가져온다(Oh, 2007).

태아착은 임부가 태아에 대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행위이다(Cranley, 1981). 임부 태아착 과정은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복부를 문지르거나, 태아에게 말하거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성별과 전반적인 외모에 대해 환상을 갖는 것이다(Davis &

Akridge, 1987). 그러나 조기진통 임부는 고위험 임신 상황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태아안녕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태아와의 정서적인 교감을 하기 어렵고 불안정한 정서를 나타내어 정상 임부보다 태아착 및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Mackey, 1993). 반면, 임신부의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태아착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Cranley, 1981; Kang & Chung, 2012).

모성역할자신감은 어머니 역할획득의 실증적 지표로서 영아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 양육적인 역할에 대해 어머니 스스로 자신을 갖거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Mercer, 1981). 모성역할자신감이 높으면 만족한 경험을 하게 되며, 자신감이나 만족감이 강화될수록 역할수행을 더 잘 할 수 있다(Lee, 1991). 그러나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낮았다(Kang, 2005; Kwon 등, 2006). 또한 조기진통으로 인한 임부의 스트레스는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을 미쳐 모아착결여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Oh, 2007).

지금까지의 조기진통 임부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조기진통스트레스(Kim, 2013; Kim, 2003; Choi 등, 2011), 태아착(Moon 등, 2006), 피로(Moon, 2006), 불안(Yu, 2010), 간호요구(Kim 등, 2009) 등이 있었다. 모성역할자신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Jang, 2004), 산욕기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Kang, 2005)와 영아기 어머니 대상으로 한 연구(Kwon 등, 2006)가 있었으나 조기진통 임부를 대상으로 한 조기진통스트레스, 태아착, 모성역할자신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조기진통 임부의 조기진통스트레스, 태아착,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를 파악해 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조기진통 임부의 모성역할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조기진통 임부의 조기진통스트레스, 태아애착,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조기진통스트레스, 태아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조기진통스트레스, 태아애착,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조기진통스트레스, 태아애착(자신과 태아를 구별, 태아의 특성과 의도를 추측, 역할수용, 태아와의 상호작용, 자기헌신)과 모성역할자신감 정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조기진통 임부의 조기진통스트레스, 태아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U광역시에 소재한 1개의 대학병원과 4개의 여성병원에서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임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표본크기는 G power 3.1.3 program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에서 사용될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결정하였다.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beta$) 80%, 효과의 크기(f_z)를 중간크기인 0.32로 산출했을 때 본 연구의 적정 표본크기는 115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25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미비한 4부를 제외한 121부(회수율 96.8%)를 최종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의 임부로 조기진통으로 진단받아 입원한 자
- 2) 조기진통 외 임신을 지속 할 수 없는 다른 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은 자
- 3)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 4)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3. 연구도구

1) 조기진통 스트레스

조기진통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Kim (2003)이 개발한 조기진통스트레스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모성간호학 교수 1인과 박사과정 대학원생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19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며, 측정범위는 최소 19점에서 최고 9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조기진통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는 Cronbach's $\alpha=.7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7$ 이었다.

2) 태아애착 측정도구

태아애착 측정도구는 Cranley (1981)가 개발한 태아애착척도(maternal-fetal attachment scale)를 Kim (2000)이 번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개 문항으로 자신과 태아를 구별 3개 문항, 태아의 특성과 의도를 추측 6개 문항, 역할수용 4개 문항, 태아와의 상호작용 5개 문항, 자기헌신 6개 문항으로 5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안했다' 1점부터 '항상 그랬다' 4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며 측정범위는 최소 24점에서 최고 96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태아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개발당시는 Cronbach's $\alpha=.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3) 모성역할자신감 측정도구

모성역할자신감 측정도구는 Pharis (1978)가 개발

하고 Park (1991)이 수정 보완한 모성역할자신감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모성간호학 교수 1인과 박사과정 대학원생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거의 자신이 없다' 1점부터 '아주 많이 자신이 있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며, 측정범위는 최소 27점에서 최고 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역할자신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개발당시는 Cronbach's $\alpha=.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6$ 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 중 예비조사를 2012년 9월 21일에서 동년 9월 25일까지 5명의 대상자에게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먼저 U광역시 소재 U대학병원 임상시험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2012083)을 받았다. U광역시 소재한 1개의 대학병원과 4개의 여성병원의 간호부서에 자료수집 의뢰를 신청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자와 4인의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직접 읽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대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조기진통스트레스, 태아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평균, 평균평점,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조기진통스트레스, 태아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t-test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조기진통스트레스와 태아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 정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제 특성 중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연령별 분포는 35세 미만이 104명(86%), 35세 이상이 17명(14%)이고, 종교는 있는 경우가 77명(63.6%), 없는 경우가 44명(36.4%)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이 96명(79.3%), 고졸 이하가 25명(20.7%)이고 직업은 있다가 51명(42.1%), 없다가 70명(57.9%)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평균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65명(53.7%), 300만원 미만이 56명(46.3%)이고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114명(94.2%)으로 불만족하는 경우가 7명(5.8%)으로 나타났다. 지각한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45명(37.2%), 보통이하가 76명(62.8%)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을 보면 임신 주수는 28주 이상이 94명(76.9%)으로 28주 미만의 28명(23.1%)보다 많았고, 초산모가 82명(67.8%), 경산모가 39명(32.2%)이었고, 조산경험이 없는 임부는 112명(96.6%), 있는 임부는 9명(7.4%)이었다. 계획된 임신인 경우가 74명(61.2%), 아닌 경우가 47명(38.8%)으로 나타났다. 산전진찰은 규칙적으로 받은 임부는 77명(63.6%), 불규칙적으로 받은 임부는 44명(36.4%)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지지에 만족하는 경우가 108명(89.3%), 불만족하는 경우가 13명(10.7%)으로 나타났다. 입원일수는 15일 미만이 92명(76%) 15일 이상이 29명(24%)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조기진통스트레스, 태아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 정도

대상자의 조기진통스트레스 정도는 평균이 65.62 ± 8.58 (도구범위: 19~95), 평균평점이 3.45 ± 0.45 (척도범위: 1~5)이었다.

대상자의 태아애착 정도는 평균이 70.56 ± 10.27

(도구범위: 24~96), 평균평점이 2.94 ± 0.42 (척도범위: 1~4)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신과 태아를 구별 정도는 3.45 ± 0.53 (척도범위: 1~4), 태아의 특성과 의도를 추측 정도는 3.13 ± 0.56 (척도범위: 1~4), 역할수용 정도는 3.04 ± 0.61 (척도범위: 1~4), 태아와의 상호작용 정도는 2.84 ± 0.50 (척도범위: 1~4), 자기현신 정도는 2.50 ± 0.46 (척도범위: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평균이 78.10 ± 17.85 (도구범위: 27~135), 평균평점이 2.89 ± 0.66 (척도범위: 1~5)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조기진통스트레스, 태아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 정도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조기진통스트레스 정도는 입원일수($t = -2.240$, $p = .027$)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입원일수가 15일 이상(68.68 ± 6.98)군이 15일 미만(64.66 ± 8.84)군보다 조기진통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태아애착 정도는 종교의 유무($t = 2.395$, $p = .018$)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가 있는 군(72.22 ± 10.68)이 없는 군(67.65 ± 8.91)보다 태아애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Demographics	Age (yr)	<35	104 (86)	30.98 ± 3.82
		≥35	17 (14)	
	Religion	Yes	77 (63.6)	
		No	44 (36.4)	
	Education	≤High school	25 (20.7)	
		≥College	96 (79.3)	
	Occupation	Yes	51 (42.1)	
		No	70 (57.9)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56 (46.3)	
		≥300	65 (53.7)	
Obstetrics	Satisfaction of marriage	Satisfied	114 (94.2)	30.18 ± 3.78
		Dissatisfied	7 (5.8)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45 (37.2)	
		Below average	76 (62.8)	
	Pregnant period (week)	<28	28 (23.1)	
		≥28	93 (76.9)	
	Parity	prime	82 (67.8)	
		Multi	39 (32.2)	
	Premature delivery	Yes	9 (7.4)	
		No	112 (96.6)	
	Planned pregnancy	Yes	74 (61.2)	
		No	47 (38.8)	
	Antenatal care	Regular	77 (63.6)	
		Irregular	44 (36.4)	
	Husband support	Satisfied	108 (89.3)	
		Dissatisfied	13 (10.7)	
	Hospital days	<15	92 (76.0)	
		≥15	29 (24.0)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가족의 월평균수입($t=-2.049$, $p=.043$), 출산력($t=-7.181$,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수입은 300만원 이상군(81.15 ± 18.77)이 300

만원 이하군(74.57 ± 16.16)보다, 출산력은 경산모(92.28 ± 15.43)가 초산모(71.36 ± 14.74)보다 모성역할자신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2. Scores of Preterm Labor Stress,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N=121)

Variables	M±SD	Instrument Range	Point M±SD	Scale rage
Preterm Labor Stress (19)	65.62±8.58	19~95	3.45±0.45	1~5
Maternal-fetal attachment (24)	70.56±10.27	24~96	2.94±0.42	1~4
Differentiation of self from fetus (3)	10.37±1.59	3~12	3.45±0.53	1~4
Interaction with the fetus (5)	14.21±2.54	5~20	2.84±0.50	1~4
Giving of self (6)	15.02±2.81	6~24	2.50±0.46	1~4
At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intention to the fetus (6)	18.78±3.39	6~24	3.13±0.56	1~4
Role taking (4)	12.16±2.44	4~16	3.04±0.61	1~4
Maternal Role Confidence (27)	78.10±17.85	27~135	2.89±0.66	1~5

Table 3.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Preterm Labor Stress and	t (p)	Maternal-fetal attachment	t (p)	Maternal Role Confidence	t (p)
		M±SD		M±SD		M±SD	
Demographics							
Age (yr)	<35	66.66±8.82	0.112 (.911)	70.79±10.65	0.623 (.534)	77.98±18.12	-.192 (.848)
	≥35	65.41±7.15		69.11± 7.64		78.88±16.56	
Religion	Yes	65.76±9.30	0.233 (.816)	72.22±10.68	2.395 (.018)	70.05±14.65	0.406 (.688)
	No	65.38±7.23		67.65±8.91		77.13±17.93	
Education	≤High school	65.32±6.61	-0.201 (.841)	72.52±7.88	1.070 (.287)	82.20±19.05	0.428 (.199)
	≥College	65.71±9.05		70.05±10.79		77.04±17.47	
Occupation	Yes	66.20±9.27	0.641 (.523)	70.56±10.33	.006 (.995)	79.45±18.22	0.705 (.482)
	No	65.20±8.08		70.55±10.31		77.12±17.64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64.87±8.50	-0.895 (.372)	70.26±9.58	-0.291 (.771)	74.57±16.16	-2.049 (.043)
	≥300	66.27±8.65		70.81±10.90		81.15±18.77	
Satisfaction of marriage	Satisfied	66.57±8.74	-0.253 (.800)	71.00±10.11	1.952 (.053)	78.68±17.77	1.441 (.152)
	Dissatisfied	66.42±5.65		63.28±10.88		68.71±17.60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66.20±9.20	0.160 (.852)	72.44±10.53	1.560 (.121)	79.95±18.33	0.875 (.383)
	Below average	65.28±8.23		69.44±10.02		77.01±17.58	
Obstetrics							
Pregnant period (week)	<28	65.92±9.92	0.211 (.834)	70.89±11.46	.194 (.847)	77.35±14.88	-0.253 (.801)
	≥28	65.53±8.19		70.46± 9.95		78.33±18.71	
Parity	prime	66.58±9.40	1.796 (.075)	93.04±11.58	1.331 (.186)	71.36±14.74	-7.182 (<.001)
	Multi	63.61±6.14		89.87±13.61		92.28±15.43	
Premature delivery	Yes	63.51±8.78	-0.497 (.620)	70.11±7.16	.136 (.892)	85.77±23.24	-1.344 (.181)
	No	67.00±5.63		70.59±10.50		77.49±17.33	
Planned pregnancy	Yes	65.71±8.67	0.141 (.888)	71.41±10.17	1.152 (.251)	75.94±17.89	-1.684 (.095)
	No	65.48±8.51		69.21±10.40		81.51±17.42	
Antenatal care	Regular	65.54±9.43	-0.080 (.937)	70.11±8.64	-0.361 (.718)	76.63±18.52	-0.684 (.495)
	Irregular	65.67±8.11		70.81±11.14		78.94±17.52	
Husband support	Satisfied	65.63±8.84	0.040 (.968)	70.63±10.44	0.236 (.814)	78.00±17.83	-0.190 (.850)
	Dissatisfied	65.53±6.22		69.92±9.09		79.00±18.72	
Hospital days	<15	64.66±8.84	-2.240 (.027)	70.69±10.22	.254 (.800)	79.61±17.80	1.672 (.097)
	≥15	68.68±6.98		70.13±10.60		73.31±17.41	

4. 대상자의 조기진통스트레스, 태아애착과 모성 역할자신감 정도의 관계

대상자의 조기진통스트레스와 태아애착 정도는 약한 순상관관계($r=.197, p=.03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아애착의 하부영역인 태아와 상호작용 정도와 조기진통스트레스 정도는 약한 순상관관계($r=.185, p=.042$), 역할수용 정도와 조기진통스트레스 정도는 약한 순상관관계($r=.346,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조기진통스트레스 정도와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r=-.112, 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태아애착 정도와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으나($r=.151, p>0.05$), 태아애착의 하부영역 중 태아의 특성과 의도를 추측 정도와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약한 순상관관계($r=.254, 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고 찰

본 연구에서 확인한 조기진통 임부의 조기진통스트레스, 태아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의 관계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진통 임부의 조기진통스트레스 정도는 평균이 65.62 ± 8.58 (도구범위: 19~95), 평균평점이 3.45 ± 0.45 (척도범위: 1~5)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조기진통 임부를 대상으로 한 Kim (2003)의 연구에서 조기진통스트레스 정도가 5점 만점 중 3.37점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보다 높았다. 이는 Kim (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에서는 자궁수축억제제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상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전체 조기진통스트레스 정도에서 제외시킨 결과로 조기진통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조기진통 임부의 조기진통스트레스를 측정할 때 본 연구의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조기진통 임부의 태아애착 정도는 평균이 70.56 ± 10.27 (도구범위: 24~96), 평균평점이 2.94 ± 0.42 (척도범위: 1~4)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조기진통 임부를 대상으로 한 Moon 등(2006)의 연구에서 태아애착 정도는 4점 만점 중 3.10점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보다 낮았다. 또한 이는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한 Kim (2008)의 연구에서 태아애착 정도는 4점 만점 중 3.09점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보다 낮았다. 이는 조기진통 임부는 높은 조산가능성으로 인해 태아가 건강할 수 있을지, 건강하게 태어나더라도 잘 성장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예측

Table 4. Correlation of Variables

(n=121)

Variables	Maternal-fetal attachment	Differentiation of self from fetus	Interaction with the fetus	Giving of self	At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intention to the fetus	Role taking	Maternal Role Confidence
	r (p)	r (p)	r (p)	r (p)	r (p)	r (p)	r (p)
Preterm Labor Stress	.197 (.030)	.119 (.192)	.185 (.042)	.128 (.163)	.046 (.618)	.346 (.001)	-.112 (.223)
Maternal-fetal attachment							.151 (.099)
Differentiation of self from fetus							.034 (.711)
Interaction with the fetus							.092 (.318)
Giving of self							.043 (.641)
At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intention to the fetus							.254 (.005)
Role taking							.114 (.213)

성으로 인해 태아애착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태아애착의 하위영역에서는 자신과 태아를 구별 정도(평균평점 3.45 ± 0.53 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태아의 특성과 의도를 추측 정도(평균평점 3.13 ± 0.56), 역할수용 정도(평균평점 3.04 ± 0.61), 태아와의 상호작용 정도(평균평점 2.84 ± 0.50)이었고, 가장 낮은 하위영역은 자기헌신 정도(평균평점 2.50 ± 0.4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태아애착의 하위영역 중 자신과 태아를 구별 내용이 '나는 뱃속에서 아기가 놀 때 기분이 좋음', '나는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음'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놓았음'이므로 조기진통 임부가 태아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태아상태와 안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려는 이유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조기진통 임부에게 태아상태와 안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태아애착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조기진통 임부의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평균이 78.10 ± 17.85 (도구범위: 27~135), 평균평점이 2.89 ± 0.66 (척도범위: 1~5)으로 중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제공이 조기진통 임부의 스트레스와 모성역할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Oh (2007)의 연구에서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5점 만점 중 3.15점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보다 낮았다. 이는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Jang (2004)의 연구에서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5점 만점 중 3.02점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보다 낮았다. 이를 통해 조기진통 임부의 모성역할자신감 정도가 미숙아 어머니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숙아 어머니는 태어난 아기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모성역할을 수행하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에 비해 조기진통 임부는 태아의 생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성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모성역할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기진통 임부의 모성역할자신감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므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조기진통 임부의 제 특성에 따른 조기진통스트레스 정도는 입원일수($t = -2.240, p = .027$) 15일 이

상인 경우가 15일 미만인 경우보다 조기진통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기진통 임부를 대상으로 한 Kim (2013)의 연구에서 입원기간이 7일 이상인 임부가 7일 미만인 임부보다 스트레스 정도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입원이 길어짐에 따라 답답하고 지루함, 일상생활의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불편감, 태아의 건강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입원기간에 따른 조기진통 임부를 위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기진통 임부의 제 특성에 따른 태아애착 정도는 종교($t = 2.395, p = .018$)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태아애착이 높았다. 이는 일반적인 모성에 종교에 따른 생명의 소중함, 신앙이 더해져서 태아를 향한 애착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조기진통 임부의 제 특성에 따른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월평균수입($t = -2.049, p = .043$), 출산력($t = -7.181,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미숙아 분만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조기진통 임부는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사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월평균 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 느껴 아기를 위한 처치를 다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모성역할자신감으로 이어져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경산인 경우가 초산인 경우보다 첫째 아기에 대한 모성역할의 경험으로 인해 모성역할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미숙아분만, 조산가능성이 있는 조기진통 임부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초산모를 위한 모성역할자신감 증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조기진통 임부의 조기진통스트레스 정도와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r = -.112, p > .05$)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산욕기 산모를 대상으로 한 Kang (2005)의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모성역할자신감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상이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성역할자신감 도구는 모성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적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조기진통 임부는 태아의 생존이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서 모성역할의 행위적 속성보다는 정의적 속성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조기진통 임부를 대상으로 정의적 속성이 포함된 모성역할자신감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기진통 임부의 조기진통스트레스 정도와 태아애착 정도는 약한 순상관관계($r=.197, p=.03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조기진통스트레스 정도와 태아와의 상호작용 정도는 약한 순상관관계($r=.185, p=.042$), 조기진통스트레스 정도와 역할수용 정도는 약한 순상관관계($r=.346,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 임부를 대상으로 한 Song (2009)의 연구에서 임부의 스트레스 정도는 태아애착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를 통해 조기진통 임부는 조기진통스트레스가 높더라도 끝까지 태아를 포기하지 않고 태아와 상호작용하고 역할을 수용하려는 태아애착을 형성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Cranley (1981)와 Kang & Chung (2012)는 임부의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태아애착 행위가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기진통 임부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기진통 임부의 태아애착 정도와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r=.151, p>0.05$)는 없었으나, 태아애착의 하위영역 중 태아의 특성과 의도를 추측 정도와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약한 순상관관계($r=.254, 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동일한 개념을 연구한 결과가 없어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조기진통 임부는 뱃속에서 태아가 잘 지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는 특성, 태동을 느끼고, 태아의 의도를 추측함으로써 태아 애착이 형성되어 모성역할자신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기진통 임부의 모성역할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태아애착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조기진통 임부의 조기진통스트레스와 태아애착은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고 모성

역할자신감 정도는 중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조기진통스트레스와 태아애착은 약한 순상관관계를 보였고 조기진통스트레스는 태아애착의 하위영역 중 태아와의 상호작용 정도, 역할 수용 정도와 각각 약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조기진통 임부의 태아애착 정도와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으나, 태아애착의 하위영역 중 태아의 특성과 의도를 추측 정도와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약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조기진통 임부의 모성역할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조기진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태아애착을 증진시키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조기진통 임부의 조기진통스트레스, 태아애착과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U광역시 소재 1개 대학병원과 4개의 여성병원에서 조기진통진단으로 입원한 임부 121명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U대학병원의 임상시험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2012083)을 받은 후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4명이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조기진통 임부의 조기진통스트레스 정도와 태아애착 정도는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고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중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조기진통 임부의 조기진통스트레스 정도와 태아애착 정도의 정도는 약한 관련성이 있었고, 태아애착 정도와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태아애착의 하위영역 중 태아의 특성과 의도의 추측 정도와 모성역할자신감 정도는 약한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조기진통 임부의 조기진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태아애착을 증진시켜 모성역할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조기진통스트레스, 태아착과 모성역할자신감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ACOG practice bulletin. Management of preterm labor. Int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2003;82:127-135
- CHoi SH, Kim HJ, Kim KY, Lee SW. The effects of stress and its related factors on pregnant women in preterm lab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11;15:230-240
- Cranley MS. Development of a tool for the measurement of matern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ing Research 1981;30:281-284
- Davis MS, Akridge KM. The effect of promoting intrauterine attachment in primiparas on postdelivery attachment.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1987;16:430-437
- Jang YS. Effects of workbook program for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on perceived stress level,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breast feeding practice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4
- Kang IS. The relationship of stress, perception of infant,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the role performance of mothers in postpartum period. Graduate School of Kosin University, 2005
- Kang SK, Chung MR. The relationship between pregnant woman's stress, temperament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2;21:213-223
- Kim HK. Stress and coping style of women with preterm labor.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 Kim JH. Experience and fetal attachment in women with high-risk pregnancy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08
- Kim KY. Effects on maternal-infant attachment by the Taegyo perspective prenatal clas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000
- Kim MK, Lee YW, Cho IS, Lim JY. Change of stress and nursing needs after hospitalization in preterm labor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9;15:24-31
- Kim SH. Stress, coping style and nursing needs of hospitalized pregnant women for pre-term labor.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3
- Kwon MK, Kim HW, Kim NS, Jang JA. Postpartum depression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parenting stress, and infant temperament in mothers of young infants.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2006;12:314-321
- Lee YE.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impact of an agreement on the means to achieve nursing goals in the early postpartum period of primiparous mothers and enhance their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maternal role performance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1991
- Loos C, Julius L. The client's view of hospitalization during pregnancy.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1989;18:52-56
- Mackey MC. Commentary on maternal tasks of uncertain motherhood. Association of Women's Health, Obstetrical and Neonatal Nurse's Women's Health Nursing Scan 1993;7:16-17
- Mercer RT.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rsing Research 1981;30:73-77
- Moon DH. The comparative study with fatigue, anxiety and stress between full-term and preterm pregnancy.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6
- Moon EH, Kim JY, Jeung MK, Son HM, Oh JA. Anxiety-depression and maternal fetal attachment behaviors of pregnant women with preterm labor and normal pregnant women. Korean Journal of Parent-Child Health 2006;9:128-139
- Morrison JC, Roberts WE, Jones JS, Istwan N, Rhea D, Stanziano G. Frequency of nursing, physician and hospital interventions in women at risk for preterm delivery. Journal of Maternal-Fetal and Neonatal Medicine 2004;16:102-105
- National Cancer Institute. Preterm birth rate [cited 2012 May 12] Available from: URL <http://www.kostat.go.kr/>
- Oh JA. Effects of providing information on stress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of women with preterm labor. Korean Journal of Parent-Child Health 2007; 10:99-109
- Park MS. Comparisons of self confidence for caring

- the baby between rooming-in and non rooming-in primiparous mother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1991
- Pharis ME. Age and sex differences in expectation for parenting among couples in a first pregnancy and among university student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Texas University at Austin, 1978
- Shin JC. Recent Trends in Management of Preterm Labor.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006;49:1403-1411
- Slattery MM, Morrison JJ. Preterm delivery. The Lancet, 2002;1489-1497
- Song YA. Relationship between stress,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compliance of prenatal care in pregnant women. Journal of Cheju Halla University 2009;32:61-72
- Yu WJ. The effect of Abdominal breathing on state anxiety, preterm labor stress and tocolytic dosage of pregnant women with preterm labor.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10